

# 백제시대 암막새 형식과 전개

김 선 기\*

## 〈목 차〉

- I. 머리말
- II. 백제시대 암막새의 사례
- III. 암막새의 형식 분류
- IV. 암막새의 편년
- V. 암막새의 원류와 전개
- VI. 맺음말

## 국문요약

백제시대 암막새는 무악형과 유악형으로 분류된다. 무악형은 압날식·유단식·음각식으로, 유악형은 무문식과 유문식으로 나뉘며, 나아가 제작방법이나 문양의 형태에 따라 각각 세분 된다. 백제시대 암막새의 원류는 풍납토성 경당지구와 부여지역의 몇몇 유적에서 사용된 유단식 암키와로 파악되며, 중국 기와의 영향 속에서 군수리사지의 압날식 기와가 출현하고 이러한 영향이 유악형 무문식 기와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악형 무문식 암막새의 내림새형은 금마저지역에서 심엽문형과 귀면문형의 유문식으로 발전한다. 고구려 안학궁 기와의 편년은 연구자마다 편차가 크지만, 암막새 중앙에 식물문과 귀면문이 나타나는 패턴은 백제시대 유문식 기와의 모티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미륵사지 출토 유문식 암막새는 왕궁리오층석탑 출토 사리내함의 문양과 기존의 인동당초문 기법이 결합되어 제작된다. 이보다 늦게 출현하는 제석사지 유문식 암막새는 미륵사지 암막새의 전통을 이어받기 보다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귀면문과 인동당초문의 기법이 결합되어 독자적으로 제작된다.

\* 원광대학교 박물관,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와 같이 드림새 중앙에 심엽문과 같은 식물문의 모습을 두거나 혹은 귀면문을 두는 문양 패턴은 후대 암막새 제작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된다.

주제어 : 암막새, 무악형, 유악형, 지두제작형, 심엽문, 귀면문

---

## I. 머리말

기와는 점토를 재료로 모골이나 와범 등의 제작 틀을 사용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 가마에 구워 지붕을 덮는데 쓰이는 건축 부재이다. 기와가 발생할 당시에는 평기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수막새와 더불어 암막새·연목와·부연와·귀면와 등 특수한 형태의 기와가 만들어지게 된다. 즉, 초기에는 누수 방지라는 기능적 목적이 중요시 되었을 것이나 이후 기와에 미적인 요소가 부가되면서 건물을 장엄하는 중요한 건축 부재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기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나 문양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기와의 편년은 관련 유적이거나 유물의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그동안의 많은 연구 성과의 축적으로 별도의 연구 장르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백제에서는 한성 도읍기에 기와가 처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한성 도읍기의 기와들은 낙랑이나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왔다.<sup>2)</sup> 웅진과 사비도읍기를 거치면서 주로 중국 남조문화의 영향을 받아<sup>3)</sup> 다양한 발전을 이룩하면서 백제 양식을 형성하였다. 그 중심은 평기와와 더불어 수막새였고, 암막새는 이보다 늦은 시기부터 제작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익산 금마저<sup>4)</sup> 제석사지의 시굴조사나<sup>5)</sup>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 암막새가 출토되었다.<sup>6)</sup> 그리고 필자는 미륵사지 출토 암막새도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sup>7)</sup> 이 외에도 한성이나 사비지역에서 백제시대로 편년되는 암막새 관련 자료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제시대 암막새의 형식

1) 권오영, 『한성기 백제 기와의 제작전통과 발전의 획기』, 『백제연구』3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4.  
2) 龜田修一, 『韓國古代瓦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 권오영, 『한성기 백제 기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기와 연구의 회고와 전망(제1회 한국기과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04.

3) 박용진, 『공주출토의 백제와당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0 ; 김성규, 『백제의 와전』, 『백제의 조각과 미술』,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1 ; 조원장, 『백제 곡절소판형 와당의 시원과 변천』, 『상명사학』10·11·12합집, 상명사학회, 2006.

4) 金馬渚는 익산시 금마면과 왕궁면 및 삼기면 일원의 백제시대 지명이다. 도농통합 이전에는 이리시와 익산군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익산이라는 지명이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통합 이후 익산은 이리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명으로 변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백제시대 실질적인 지명인 금마저를 사용하고자 한다.

5) 김선기·김종문·조상미 외, 『익산제석사지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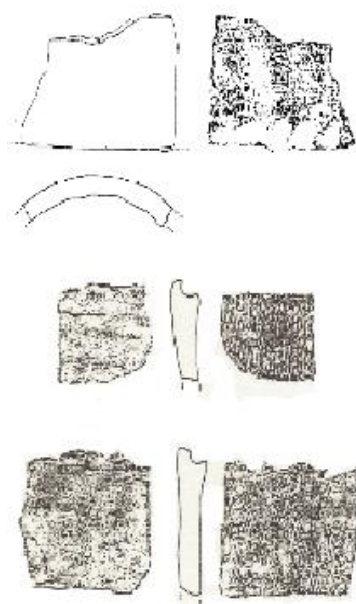
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석사지』 발굴조사보고서 I, 2011.

7) 김선기, 『지지명 인각와를 통해 본 미륵사 창건과 몇 가지 문제』,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 『미륵사지 출토 백제시대 암막새 연구』, 『고문화』7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0.

분류와 더불어 암막새의 원류와 전개양상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II. 백제시대 암막새의 사례

백제시대의 시원적인 암막새로 판단할 수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최맹식과<sup>8)</sup> 심상육<sup>9)</sup> 등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기존의 자료와 아울러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백제시대 암막새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체계적이고 알맞는 용어가 정리될 때까지 턱의 유무에 따른 유악식과 무악식의 용어 등을 사용하고자 한다.



도 1. 풍납토성 출토 기와

### 1. 풍납토성 출토 기와

풍납토성에서 선단부 내측에 지두문을 둔 암기와가 출토되었다. 지두문이 있는 선단부의 횡단면으로 보아 약간 두껍기는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아직 본격적인 암막새의 시원적인 기능을 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sup>10)</sup>

경당지구에서도 정연하지는 않지만 암기와의 선단부를 가공한 것도 확인되는데, 선단부가 매우 두꺼우며 단면을 강하게 물손질하여 홈을 내 만들었다.<sup>11)</sup>

### 2. 몽촌토성 출토 기와

몽촌토성 출토 지두문 암기와는 등면에 소격자문이 시문되고, 내면에 통쪽외통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지두문은 동일 기와에서 서로 연결한 것과 약간 간격을 둔 부분이 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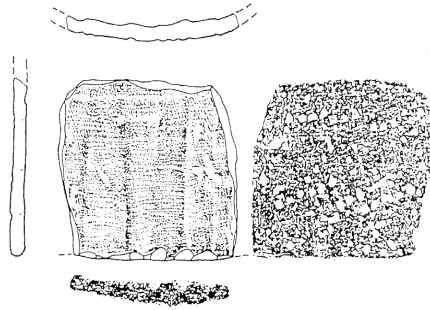
8) 최맹식, 『삼국 암막새의 시원에 관한 소고』, 『문화사학』21, 한국문화사학회, 2004.

9) 심상육, 『백제 암막새의 출현과정에 관한 검토』, 『문화재』3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10) 최맹식, 앞의 논문, 2004, 6쪽.

11) 정치영, 『한성기 백제 기와 제작기술의 전개양상』, 『한국고고학보』63, 한국고고학회, 2007, 99쪽.

12) 최맹식, 『삼국시대 평기와의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231쪽.



도 2. 몽촌토성 출토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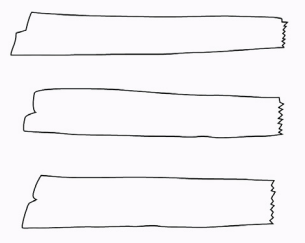
도 3. 군수리사지 출토기와

### 3. 군수리사지 출토 기와

군수리사지 출토 지두문 암막새는 일제강점기의 조사에서만 확인되었다.<sup>13)</sup> 암키와 선단면 중앙에 음각선을 두고 상하로 나뉘어 윗부분은 평평한 상태로, 아랫부분은 손으로 눌러 만든 지두문의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한 점은 지두문만 시문되었다.

### 4. 구아리 출토 기와

우물지 외부에서 출토된 15점의 암키와에 완형은 없으나 상·하단 중 어느 한 면에만 L자 모양의 단이 마련되었다. 기와의 두께가 2cm내외인데 비해 단이 있는 부분은 2.7cm로 두꺼워지는 점에서 암키와의 내림새 기능과 같은 착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14)</sup>



도 4. 구아리유적 출토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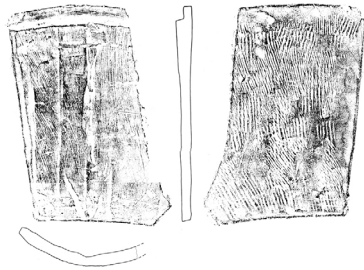
### 5. 능산리사지 출토 기와

암키와의 상단부에 길이 2.5cm의 미구를 만든 미구식 암키와라고 보고하고 있으나<sup>15)</sup> 아직까지 미구식 암키와의 예는 없다. 암키와 중간부분의 두께는 2.0cm

13) 石田茂作, 『夫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概要)』, 『昭和11年度 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1937.

14)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구아리 백제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93, 59~61쪽.

15) 국립부여박물관, 『능사-부여 능산리사지발굴조사 진전보고-』 본문, 2000, 150쪽; 도면·도판편, 2000, 9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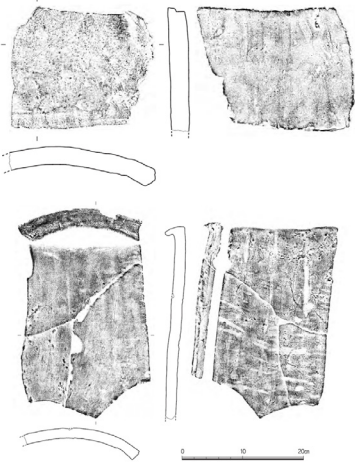


도 5. 능산리사지 출토 기와

내외이지만 단이 있는 부분의 두께는 2.6cm로 두껍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구아리유적의 예와 같은 모습이다.

#### 6. 관음사지 출토 기와

부여 관음사지는 2004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했으며, 여기서 암기와 12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16)</sup> 출토된 암기와에 대해서 심상욱은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것과 흡사한 단이 있는 암기와를 암막새와 연결시켜 볼 수 있으며, 통쪽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의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였다.<sup>17)</sup> 그러나 보고서에서 유단식 암기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 6. 관북리유적 출토 기와

#### 7. 관북리 출토 기와

암기와 선단에 단이 있는 것과 무늬 없이 턱이 있는 암기와가 출토되었다.

전자는 1.5~1.6cm 크기로 단을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단을 만들면서 점토를 덧대고 정면한 흔적이 내면에서 확인된다. 선단부로 갈 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sup>18)</sup>

후자는 초기 암막새편으로 보고 있다. 내림부 길이는 2.5~2.7cm 정도의 것과 1.5cm 내외의 것이 있으며, 물손질로 잘 다듬었다. 암기와의 선단부를 눌러 휘어서 만들거나 내림부에 일부 점토를 덧대어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암기와에서는 직경 1.0~1.4cm 정도의 못 구멍이 있다.<sup>19)</sup>

1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관음사지 시굴조사보고서』, 『부여 관음·밤골사지 시굴조사보고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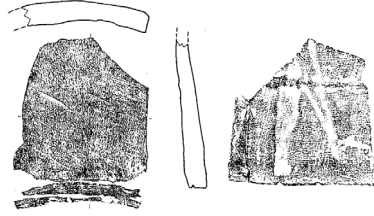
17) 심상욱, 앞의 논문, 2005, 163쪽.

18)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관북리백제유적 발굴보고 III』, 2009, 394~397쪽.

19) \_\_\_\_\_, 앞의 책, 2009, 390~397쪽.

### 8. 오합사지 출토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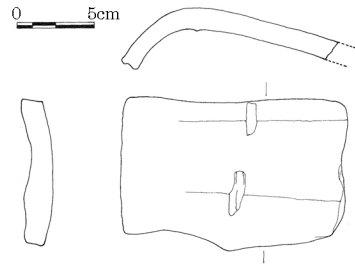
1점이 출토되었다. 오합사지 1기 유물로 정형화된 암막새는 아니지만 통쪽 외통으로 만들어진 암키와 중 하단부가 가운데보다 두꺼우면서 하단면에 파상의 음각선이 시문되어 있어 암막새의 시원적인 모습을 엿 볼 수 있다고 한다.<sup>20)</sup>



도 7. 오합사지 출토 기와

### 9. 부소산성 출토 기와

암키와 하단 일부를 등 방향으로 곡면 처리하여 드림새가 되도록 착안한 것이다. 즉, 등기와의 배면쪽으로 130° 정도 구부려 막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기와의 내면에는 외통을 구성했던 통쪽의 흔적과 각 통쪽을 연결했던 끈 흔적이 2조의 음각선으로 타나나며, 드림새 부분의 높이는 5.6cm에 이른다.<sup>21)</sup>



도 8. 부소산성 출토 기와

### 10. 미륵사지 출토 기와

미륵사지 창건 암막새로<sup>22)</sup> 중앙에 심엽문을 장식하고, 아래의 끝이 말린 받침은 좌·우단을 향해 파상을 이루며 뺀어 있다. 줄기에는 좌우에 세 가닥씩의 가지를 분지시키고 줄기가 반전되는 곳과 드림새 좌·우단에 심엽문과 비슷한 새싹이 돌아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주연이 있는 것과 연주문만을 시문한 두 가지 형식으로



도 9. 미륵사지 출토 암막새

20) 성정룡, 『유물에 대한 고찰 -기와』, 『성주사』,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412쪽.

21)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중간보고서, 1995, 76~78쪽.

22) 김선기, 『지지명 인각와를 통해 본 미륵사 창건과 몇 가지 문제』,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 『미륵사지 출토 백제시대 암막새 연구』, 『고문화』7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0.

나뉘진다.

### 11. 제석사지 출토 기와



도 10. 제석사지 출토 암막새

제석사지 암막새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시굴조사와<sup>23)</sup>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에서<sup>24)</sup> 백제시대 수막새와 같은 층에서 출토되었다.

드림새의 중앙에는 도식화된 귀면이 시문되어 있고, 좌우 양단을 향해 인동당초문이 유려하게 뻗어 있다. 당초 줄기가 꺾이는 곳마다 5엽으로 표현된 인동화가 만개되어 있다.

### 12. 전 아차산성 기와



도 11. 전 아차산성 출토 기와

국립중앙박물관 신6626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와로 백제시대 아차산성 암막새로 분류하여 『신라와전』 도록 240쪽에 실려 있다. 턱이 없는 무악식으로 암키와 선단면에 음각으로 당초문을 서툴게 표현하고 있는 기와이다.

## Ⅲ. 암막새의 형식 분류

기와는 지붕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암막새나 수막새도 지붕의 선단에 들이치는 빗물을 막아주거나, 지붕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처마로 스며들지 않게 하여 지붕에 사용된 목부재 등의 부식을 방지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외에 내림새에 문양을 넣어 목조건물의 지붕을 장식하는 기능도 함께 한다. 즉, 암·수막새는 기능적인 요소와 장식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23) 김선기·김종문·조상미 외, 『익산제석사지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4.

2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석사지』 발굴조사보고서 I, 2011.

위의 사례를 통해서 암막새의 형식을 분류하여 보면, 일단 암키와 선단의 내립새 유무에 따라 무악형과 유악형으로 대별된다. 무악형 암막새는 제작방식에 따라 압날식·유단식·음각식으로 나뉘며, 유악형은 무문식·유문식으로 분류되는데 형태나 제작방법에 따라 세분된다.

## 1. 무악형(無顎型) 암막새

### 1) 압날식(押捺式)

압날식은 시문구를 활용하여 기와의 선단에 파상문 등의 문양을 내는 경우와 손으로 눌러 만든 소위 지두문 암막새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제작 방식에 따라 전자는 시문구제작형으로, 후자는 지두제작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전자는 아직까지 백제시대 유적에서는 확인된바가 없으나 고구려에서는 방형으로 시문한 형태와 삼각형으로 시문한 형태, 그리고 봉에 노끈을 감아 시문한 형태 등이 확인되고 있다.<sup>25)</sup> 그러므로 백제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양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에서는 지두문기와의 출토 되었다. 출토된 기와는 군수리사지처럼 선단면부에 문양을 표현한 것과는 달리 암키와 끝의 내외면에 나타나 있으며, 기와의 선단부 두께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능적인 면이나 장식적인 면에서 암막새 형식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sup>26)</sup>

군수리사지 출토품은 암키와의 선단면 전체나 혹은 중앙에 음각선을 두고 아래단에 지두압흔을 반복하여 문양을 냈다.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단의 처짐은 물이 처마 안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보여주어 본격적인 압날식 수지제작형 암막새로 분류할 수 있다.<sup>27)</sup>

### 2) 유단식(有段式)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 암키와는 선단면을 강하게 물손질하여 흠을 냈기

<sup>25)</sup> 주홍규, 『集安지역 고구려기와의 제작기법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66, 한국상고사학회, 2009, 96쪽.

<sup>26)</sup> 최맹식이나 정치영도 단부의 마무리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가능성을 피력한 바 있다.(최맹식, 『고구려 기와의 특성』, 『고구려연구』12, 고구려학회, 2001, 1014쪽 ; 정치영, 『백제·고구려와 위진남북조 제외술 비교 연구』, 『중앙고고연구』8,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1, 98쪽.)

<sup>27)</sup>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와를 ‘지두문암키와’라고 하거나 ‘선단부파상문 암키와’로 부르기도 한다.(정치영, 『백제·고구려와 위진남북조 제외술 비교 연구』, 『중앙고고연구』8, 중앙문화재단연구원, 2011, 98쪽.)

때문에 연속적으로 눌러서 문양을 내는 압날식과는 구분된다. 단면도에서 보면 홈은 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암키와는 선단부가 매우 두꺼운 점으로 보아 장식적인 요소는 적으나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원적 암막새로 구분이 가능하다.

암키와 선단부에 와도를 사용하여 L자형으로 깎아 단을 만든 기와는 구아리유적·능산리사지·관음사지·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라 지역에서도 유단식 암막새로 추정되는 기와들이 황룡사지·육통리와요지·다경와요지·하구리에서도 출토 되고 있어<sup>28)</sup> 비교적 널리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단식 암키와는 선단부를 두껍게 하고 여기에 단을 만든 것으로 보아 미약하나마 지붕의 장식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전자는 유단식 중 손가락으로 물손질하여 만든 수지제작의 방식으로, 후자는 와도제작의 방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

### 3) 음각식(陰刻式)

음각식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각식이 있으며, 음각식 안에서도 문양의 형태에 따라 기와의 선단면 중앙에 선을 긋는 원호문형이나 당초문형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백제유적에서 알려진 확실한 예는 오합사지 출토품 1점이 있을 뿐이다. 오합사 출토품에 대해서 보고서에서는 파상문의 음각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이 없어 사진이나 탁본자료를 통해서 보면 정형화된 파상문이 아니라 직선에 가까운 음각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각선이 있는 부분이 두꺼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무악형의 한 형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형식의 암막새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사천왕사 출토 암막새에서도 보인다. 이 기와는 하단면이 약간 두꺼운 무문인데 선단면에 와도를 사용해 손으로 직접 그은 부정형한 홈이 있다.<sup>29)</sup>

그밖에 아차산성 기와로 전하는 음각식 당초문 기와가 있다. 그러나 아차산성에서 주로 고무려 기와들이 출토되고 있어 확실한 소속을 알 수 없으나 오합사지에서 음각식 원호문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음각식 당초문의 예도 확인될 가능성은 있다.

28) 조성윤, 『고신라 유단식 기와에 대하여』, 『고문화』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1, 115~117쪽.

29) 이다운, 『성주사지 출토 백제기와의 일본 오합사지 출토 기와 비교고찰』, 『성주사』,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439쪽.

## 2. 유악형(有顎型) 암막새

### 1) 무문식(無紋式)

무문식은 내림새에 문양이 없는 형식의 암막새를 말하며 두 종류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토기구연형으로 토기 구연과 같이 암키와를 아래로 굽혀 암막새의 내림새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내림새형으로 암키와에 턱이 있는 내림새가 있으나 문양을 넣지 않은 형태이다. 토기구연형은 부소산성에서 3점이 출토된 예가 있다. 이와 비슷한 예는 경주에서 조사된 암막새형 토기로 월성해자와<sup>30)</sup> 물천리유지에서<sup>31)</sup>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이 암막새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sup>32)</sup> 지붕 이외의 특정된 장소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sup>33)</sup> 필자는 부소산성 기와는 기본적으로 암키와를 사용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암막새의 한 형식으로 보고자 한다.

내림새형은 관북리유적에서 7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sup>34)</sup> 내림부의 길이가 1.5cm 정도로 짧은 것도 있지만 2.5~2.7cm 크기의 것도 있다. 턱이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암막새와 다르지 않지만, 내림부를 별도로 만들어 부착한 것이 아니고 암키와의 선단부를 늘려 휘어서 만들거나, 내림부에 일부 점토를 덧대어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내림새 위쪽에 와정공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암막새로 사용되었음은 확실하다. 내림새형은 중원 탑평리사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sup>35)</sup>

### 2) 유문식(有紋式)

유문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형적인 암막새의 형태로서 내림새 앞면에 시문한 것을 통칭한다. 백제시대 것으로는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출토품이 있다. 우리나라 암막새의 문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문양에 따른 분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암막새를 분류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암막새의 계통과 변화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중앙에 배치된 문양의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백제시대 유문식 암막새는 중앙의 문양 형태에 따라 심엽문형과 귀면문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심엽이나 귀면은 문양의 세

30)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와전』, 2000, 33쪽.

31) \_\_\_\_\_, 앞의 책, 2000, 182쪽.

32) 金有植, 『三國時代軒平瓦の發生に関する小考』, 『鹿苑雜集』, 奈良國立博物館研究紀要, 2004, 100쪽.

33) 김성구, 『신라기와의 성립과 그 변천』, 『신라와전』, 국립경주박물관, 2000, 432~433쪽.

3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9, 390~397쪽.

35) 한국고원대학교 박물관, 『중원 탑평리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993, 209쪽.

부적인 표현일 뿐 넓은 의미에서는 식물문형과 추상적인 문양이지만 동물문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귀면문은 용면문으로 불러야 한다는 제안도 있고<sup>36)</sup> 용수문으로 부르기도 한다.<sup>37)</sup>

#### (1) 심엽문형(心葉紋型)

심엽문은 미륵사지 출토 암막새인데, 별도로 만든 내림새를 암키와와 접합하였다. 중앙에는 심엽문이 표현되어 있으며 문양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당초문의 줄기가 기와의 양단까지 이어지는 형태이다. 당초의 줄기 사이에서도 새 순이 돋는 모양을 시문하고 있다. 심엽문 암막새는 두가지 형식으로 주연이 비교적 높고 소문인 것과 음각선으로 구획하고 연주문을 배치한 형태가 있다. 두 형식 모두 같은 층위에서 출토되어 시기차이 없이 동시에 사용된 것이다.

#### (2) 귀면문형(鬼面紋型)

제석사지 폐기장 발굴조사에서는 암막새가 출토되지 않아 창건가람에서는 암막새를 사용하지 않았으며,<sup>38)</sup> 貞觀13年(639) 뇌우에 의해 제석사가 소진된 후 재건된 중건가람에서 암막새가 처음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sup>39)</sup>

드림새의 중앙에는 귀면문이 시문되었는데 큰 눈과 코, 크게 벌린 입과 날카로운 이가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귀면의 하단 좌우에서 양단을 향해 당초문이 유려하게 뻗어가고 줄기가 꺾이는 곳마다 5엽의 인동화가 만개되어 있다. 드림새의 양 측면을 제외한 상단과 하단에 비교적 턱이 높은 무문의 주연부가 마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암막새의 형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I. 무악형

1. 압날식 - 시문구제작형  
지두제작형
2. 유단식 - 수지제작형  
와도제작형
3. 음각식 - 원호문형  
당초문형

<sup>36)</sup> 강우방, 『한국와당예술훈서설』, 『신라와전』, 국립경주박물관, 2000, 429쪽.

<sup>37)</sup> 백중우, 『고구려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209쪽.

<sup>38)</sup> 김선기·조상미, 『익산왕궁리전와요지(제석사폐기장)』, 원광대학교 박물관, 2006.

<sup>39)</sup> \_\_\_\_\_, 『익산 제석사지 백제기와에 대하여』, 『기와학회논문집』3, 한국기와학회, 2007.

## II. 유약형

1. 무문식 - 토기구연형  
내림새형
2. 유문식 - 심엽문형  
귀면문형

## IV. 암막새의 편년

### 1. 무약형 암막새

출토 암막새 중 몽촌토성 경당지구 출토품은 가장 앞선 시기인 한성도읍기의 유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속이 불확실한 아차산성 출토품으로 추정되는 음식식 당초문도 한성도읍기의 기와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sup>40)</sup> 그러므로 이들 유물을 제외하면 백제시대 암막새로 판단되는 기와는 모두 사비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익산 금마저에서 출토되고 있어 주로 사비도읍기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압날식 지두제작형이 출토된 군수리사지의 창건연대를 살필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군수리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 심초석 상부에서 출토된 불상의 편년은 6세기 중반<sup>41)</sup>과 7세기설<sup>42)</sup>이 제기된바 있다. 그리고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는 6세기 전·중반으로 편년하고 있다.<sup>43)</sup> 그런데 군수리사지와 비슷한 형태의 지두제작형 암막새가 중국 북위의 516년 창건사찰인 영녕사에서 확인되었다.<sup>44)</sup>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보면 군수리사지 출토 압날식 지두제작형 암막새는 사비천도시기인 538년 이후 6세기 중엽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약형 유단식 기와는 구아리유적·능산리사지·관음사지·관북리유적에서 출토되었고, 그중에서 유적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곳은 능산리사지 뿐이다. 능산리사지는 목탑지 발굴조사에서 창왕명사리감이 출토되었는데, 여기

40) 『신라와전』(2000,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백제 한성시대대로 분류하여 수록되어 있다.

41) 김춘실, 『백제조각의 대중교섭』, 『백제미술의 대외교섭(제5회 전국미술사학대회 발표논문집)』, 1998.

42) 황수영, 『백제의 불상조각』, 『백제문화』7·8합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75.

4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군수리사지 I』, 목탑지 금당지 발굴조사보고서, 2010, 164쪽.

44) 김성구, 『중국기와의 변천과 특성』,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제6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2009, 14쪽.

에는 567년 창왕의 누이에 의해 발원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sup>45)</sup> 능산리사지는 위덕왕 창건 이후 능사로서 기능이 상실된 시기는 의자왕에 이르는 시점에서 구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46)</sup> 그러므로 능산리사지의 존속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유단식 기와는 창왕명 사리감이 봉안될 무렵에 만들어진 기와로 판단된다. 그리고 나머지 유단식 기와들도 천도와 더불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악형 음각식은 성주사지에서 출토되었다. 성주사지는 백제시대 오합사로 추정되는데, 무악형 음각식은 오합사지 1기에 해당하는 유물이다.<sup>47)</sup> 그러므로 음각식의 암막새는 오합사가 창건되던 때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합사의 창건은 『崇巖山聖住寺事蹟』과 『聖住寺碑』의 기록을 통해 법왕 때 창건된 사찰로 보기 때문에<sup>48)</sup> 600년 경에 사용된 기와임을 알 수 있다.

## 2. 유악형 암막새

유악형에서 무문식은 부소산성에서 토기구연형이 출토되고, 관북리유적에서 무문의 내림새형이 출토되었다. 부소산성이나 관북리유적은 백제 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와들도 천도와 더불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따름이다.

유악형 유문식 중 심엽문 암막새는 미륵사지 창건기와로 사용되었다.<sup>49)</sup> 필자는 미륵사지의 창건은 무왕이 발원했다고 하더라도 완성은 의자왕대인 65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바 있다.<sup>50)</sup> 이러한 근거는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지지명 원형 인각명문와의 편년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후 미륵사지 서탑 사리장엄구의 발견으로 639년에 사리를 봉안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미륵사지의 의자왕 완성설에 신빙성을 더해 주었다. 그렇다면 미륵사지의 창건에는 약 50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대한 규모의 사찰을 조성해야 했던 관계로 각각의 건물들은 시차를 두고 완성되었을 것이다. 일단 가장 늦게 조성된 것은 지형적인 조건이나 서탑 사리장엄구의 출토를 통해 보면 아마 서탑 주변 건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륵사지 창건 수막새로 보고 있는 E1과 F1 형식이<sup>51)</sup> 미륵사지 서탑을 해체하고

45) 국립부여박물관, 『능사 -부여 능산리사지발굴조사 진전보고-』, 2000.

46) 김종만, 『부여 능산리사지에 대한 소고』, 『백제금동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2003, 248쪽.

47) 김정룡, 『유물에 대한 고찰 -기와』, 『성주사』,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412쪽.

48) 김수태, 『역사적 고찰』, 『성주사』,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606쪽.

49) 김선기, 『익산지역 사찰유적을 통해 본 백제문화의 창의성』, 『전북향토사의 재발견』, 전북역사문화학회, 2010, 100쪽.

50) \_\_\_\_\_, 『익산 제석사지 백제기와에 대하여』, 『기와학회논문집』3, 한국기와학회, 2007.

하부를 조사하던 중 기초 굴광선 안쪽과 바깥쪽에서 출토되었다.<sup>51)</sup> 그러므로 이러한 수막새는 미륵사지 서탑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사지 출토 기년이 날인된 원형인각명문와는 627년으로 편년되는 ‘丁亥’명과 629년으로 편년되는 ‘己丑’명 원형인각명문와는 80점과 44점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2)</sup> 이러한 원형인각명문와 출토를 바탕으로 무왕 30년에 미륵사가 완공된 것으로 파악하거나<sup>53)</sup>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완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54)</sup> 그러나 이때는 서탑 일원의 건립에 앞서 중심곽이라 할 수 있는 중앙 목탑과 금당지 등이 완성되었던 때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륵사지 암막새는 원형인각명문와 사용 시점인 630년 이전에는 제작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丁亥’명 원형인각명문와가 사용된 627년에는 미륵사지 암막새가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문식 귀면문 암막새는 제석사지 중건 당시에 제작된 기와이며 미륵사지에서도 작은 편들이 출토된 바 있다. 제석사지 귀면문 암막새는 地支명을 기록한 원형인각명문와의 편년을 통해 사용 시기를 한국기과학회에서 밝힌 바 있다.<sup>56)</sup>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석사지 시굴조사에서 ‘巳, 毛’, ‘午, 斯’, ‘上, 乙, 瓦’의 원형인각명문와와 더불어 문양인각와 등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제석사지 창건건물의 화재 잔재물 폐기장에서는 수 만점의 기와편이 출토되었지만 원형인각명문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건가람에서 출토된 원형인각명문와는 제석사지가 화재에 의해 소실된 639년 이후에 사용되었음을 이야기해준다.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한 장의 기와에 날인된 2개의 인각 중 위에 있는 인각 안에는 12地支 중의 한 글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글자가 기와의 제작년도를 타나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없다. 그렇다면 639년 이후 ‘巳’가 들어가는 지지명 원형인각명문와는 乙巳年인 645년과 丁巳年인 657년에, ‘午’가 들어가는 지지명 원형인각명문와는 丙午年인 646년과 戊午年인 658년 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657년과 658년은 백제 멸망시기에 가까우므로 645년과 646년으로 편년될 수 있다. 제석사의 화재는 639년 겨울 11월의 일이었기 때문에 인력동원능력

51)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 발굴조사보고서 I, 1989, 197쪽 ; 김선기, 『익산지역 백제 사지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34~135쪽.

52)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서탑 제18차 자문회의』 회의자료, 2010.

53) 김선기, 앞의 논문, 2010, 177쪽.

54) 노중국, 『백제 무왕과 지명법사』, 『한국사연구』107, 한국사연구회, 1999, 5~8쪽 ; 이도학, 『백제 무왕대 익산 천도설의 재검토』, 『경주사학』22, 경주사학회, 2003, 79쪽 ; 김주성, 『백제 무왕의 즉위과정과 익산』, 『마한백제문화』1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7, 215쪽.

55) 노기환, 『미륵사지 출토 백제 인각와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5쪽.

56) 김선기, 『익산 제석사지 백제기와에 대하여』, 『기과학회논문집』3, 한국기과학회, 2007.

여하에 따라 증견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제석사지 출토 귀면문 형태의 인동당초문암막새는 지지명 원형인각명문와와 공반 됨으로 645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백제지역에서는 고구려에서와 같은 시문구를 사용한 압날식 암막새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백제에서는 풍납토성 경당지구에서 수지제작의 무악형 유단식이 처음 원시적인 형태의 암막새로 등장하고, 사비도읍기에 사비지역에서 와도제작형 유단식과 더불어 압날식, 음각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유악형 무문식이 만들어진 이후 금마저에서 유문식 심엽문형, 유문식 귀면문형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암막새로 판단되는 유물들의 출토 수량이 소략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편년을 바탕으로 암막새의 원류와 전개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V. 암막새의 원류와 전개

### 1. 유악형 암막새의 출현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암막새의 형식별 출토 양상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형식별 암막새 출토 유적 현황

구 분		한성지역	사비지역	금마저지역	비고	
무악형	압날식	시문구제작형				
		지두제작형		군수리사지		
	유단식	수지제작형	풍납토성 경당지구			
		와도제작형		구아리, 능산리, 관북리, 관음사지		
	음각식	원호문형		오합사지		
		귀면문형	전 이성산성			
유악형	무문식	토기구연형		부소산성		
		내림새형		관북리유적		
	유문식	심엽문형			미륵사지	
		귀면문형			제석사지	

먼저 암막새의 시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암키와의 선단부에 각재나 혹은 다치구를 이용하여 압날하는 시문구제작형의 기와 제작방법은 중국 한나라 때 이미 사용되었다고 하며,<sup>57)</sup> 남북조시대에도 압날식 기와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sup>58)</sup> 고구려는 집안지역의 태왕릉, 천추총, 장군총, 서대총, 우산3319호, 칠성산 211호에서 다양한 압날식의 기와들이 출토되었다.<sup>59)</sup> 이 외에도 무순 고이산성이거나 심귀리떼무덤 출토 기와에서 압날식의 문양들이 확인된다.<sup>60)</sup> 그러므로 백제가 중국과 고구려와의 교류 등을 통한 충분한 접촉에 의하여 기와에 관한 정보도 공유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백제에서는 아직까지 고구려에서와 같이 각재나 혹은 다치구 등을 이용하여 암키와 선단에 시문한 예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성지역인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에서 지두문이 출토된 예는 있으나 암막새의 시원형으로는 볼 수 없다. 단지 사비도읍기 군수리사지에서 비로소 지두제작형의 암막새가 출토된다. 군수리사지 출토 유물은 비록 압날식의 범주에 속하지만 시문구로 문양을 낸 기와보다 시기적으로 늦으면서 발전된 형태이다.

이와는 달리 백제의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형식이 무악형 유단식 기와이다. 형태나 두께 등을 통해 보았을 때 지붕의 선단부에 설치하여 원시적인 암막새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품은 손가락으로 물론질하여 만든 수지제작형이며, 사비지역은 와도로 잘라 만든 와도제작형이다. 제작방법은 다르지만 외형상 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사비지역 유단식 기와는 경당지구의 유단식 기와를 잇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비지역 유단식 기와들이 출토되는 지역 중 관북리 유적은 사비천도와 관련된 유적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구아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원형돌기형 수막새는 6세기 전반 사비천도 무렵으로 편년하고 있다.<sup>61)</sup> 비록 웅진지역에서 유단식 기와의 출토 예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사비지역에서는 천도와 함께 곧바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능산리사지나 학리사지 등에서 6세기 후반까지는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유단식 기와가 백제시대에 주로 사용된 원시적인 형태의 암막새임을 알 수 있다.

유악형의 무문식 암막새는 토기구연형과 내림새형으로 구분된다. 두 유물이

57) 向井佑介, 『押壓波狀文平瓦の源流』, 『待兼山考古學論集』, 2005를 정치영, 『백제·고구려와 위진남북조 제와술 비교 연구』, 『중앙고고연구』8, 2011, 143쪽에서 재인용.

58) 김성구, 『중국기와의 변천과 특성』,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제6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2009, 14쪽.

59) 주홍규, 『集安지역 고구려기와의 제작기법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66, 한국상고사학회, 2009, 96쪽.

60) 최명식, 『고구려 기와의 특성』, 『고구려연구』12, 고구려학회, 2001, 1013~1014쪽.

61) 윤용희, 『백제 와전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 『백제와전』, 국립부여박물관, 2010, 345~346쪽.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에서 각각 출토되고 있다. 무문식 토기구연형은 암키와를 구부려 만들고 있으며, 내림새형은 기와 단부를 휘어 내리던가 아니면 약간의 점토를 덧대어 만들었다. 특히 관북리유적 출토 무문식 내림새형은 유약형 유문식 암막새의 바로 앞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관북리유적은 전역에 조성된 성토대지가 백제 하부생활면과 백제 상부생활면의 구분을 가능케 하였다. 전자는 웅진기말에서 사비기 초기 생활면으로 비정되며, '나'지구 공방관련 유구, 백이기동열, '다'와 '라'지구의 저장구덩이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62)</sup> 출토된 유약형 무문식 암막새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주로 '라'지구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암막새는 백제 상부생활면에서도 출토되지만 성토층이나 대형전각건물의 성토층뿐만 아니라 백제 하부생활면인 1호나 2호 대형구덩이 속에서도 출토되고 있어<sup>63)</sup> 최소한 사비천도 이후에는 사용된 막새로 추정된다.

무문식 내림새형의 암막새는 관북리유적 외에도 탑평리사지에서 많은 수가 출토되었다. 탑평리 암막새는 고구려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6엽단판연화문 수막새와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6세기 중엽 고구려의 충주 점령 말기에서 신라 점령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편년하고 있다.<sup>64)</sup> 다른 한편, 탑평리 암막새의 제작시기를 공반유물의 검토와 아울러 7세기 중엽 이전으로 올려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65)</sup> 이와 같이 암막새의 편년관이 다르기도 하지만 탑평리 유약형 무문식 암막새가 관북리 암막새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만들어졌다는 근거는 없다. 하물며 고구려에서는 집안이나 평양 등지에서 이러한 유약형 무문식 암막새의 출토사실이 보고된바 없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북리유적 출토 암막새가 고구려 기와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유약형 암막새의 출현은 백제지역에서 찾아야만 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군수리사지에서 출토된 지두제작형 암막새로 암키와의 선단부에 지두문만을 두거나 중앙에 침선을 두고 아래에 지두문을 시문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두제작형은 고구려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북조기와의에서는 이러한 지두제작형 형태의 암막새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낙양 영녕사에서 출토된 예가 있어<sup>66)</sup> 북조 기와제작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

6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관북리백제유적 발굴보고 III』, 2009, 518쪽.

63) \_\_\_\_\_, 앞의 책, 2009, 390~396쪽.

64) 한국고원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1993, 276~277쪽.

65) 김유식, 『한국 기와의 시대적 특징』, 『유창중 기증 기와·전돌』, 국립중앙박물관, 2002, 308쪽.

66) 정치영, 『백제·고구려와 위진남북조 제외술 비교 연구』, 『중앙고고연구』8,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128쪽.

로 생각하기도 한다.<sup>67)</sup> 그리고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연화문수막새를 6세기 전·중반으로 편년하고 있다.<sup>68)</sup> 그러므로 암키와의선단부에 지두문을 시문과 정에서 나타나는 처짐 현상은 암막새가 무악형에서 유악형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sup>69)</sup>

다시 말해서 무악형 유단식 기와는 백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원시적인 암막새로 판단된다. 그 시원적인 형태가 한성도읍기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품으로 판단되며, 사비도읍기에 와서 와도제작형의 유단식 기와로 발전하여 어느 정도의 시기 폭을 가지면서 몇몇의 유적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단식 암막새는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수리사지 출토 지두제작형 암막새의 영향 등으로 관북리유적과 같은 유악형 무문식 암막새로 발전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2. 유악형 유문식 암막새의 원류와 전개

새로운 형식의 등장은 반드시 그 모티브가 되는 앞선 시기의 형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적 시각과 앞선 시기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행하는 문화요소들을 조합하여 만들어내는 창조론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백제시대 유악형 유문식 암막새의 등장은 무악형 유단식에서 중국 암막새의 영향을 받아 유악형 무문식이 등장한 이후 유문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진화론적 시각에서의 필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자기 유문식 암막새에서 세련된 문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연 진화론적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창조론적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진화론적 시각에서 지나칠 정도로 세련된 유악형 유문식 암막새의 출현을 살펴보고자 하면 그 원류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백제시대 유악형 유문식 암막새는 금마저 지역에서만 사용된다. 즉, 미륵사지와 제석사에서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암막새의 중앙에 심엽문(식물형)과 귀면문을 각각 배치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패턴을 갖는 암막새의 제작 예는 고구려 안학궁 출토 유물<sup>70)</sup>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sup>67)</sup>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영의 앞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sup>68)</sup>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군수리사지 I』, 2010, 164쪽.

<sup>69)</sup> 심상육도 백제 유악식 암막새의 출현은 북조 지두문암키와에서 토기구연암키와와 유악식암키와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심상육, 『백제 암막새의 출현과정에 관한 검토』, 『문화재』 3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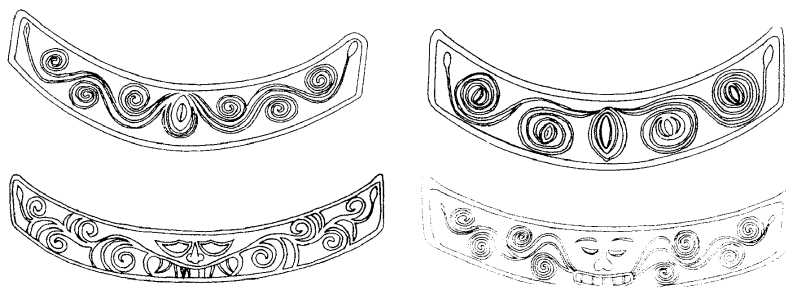
<sup>70)</sup> 리광휘, 『기와와 질그릇을 통해 본 안학궁의 존속연대』,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고구려연구재단, 2006, 220~231쪽.

암막새를 금마저 유문식 암막새의 원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안학궁 출토 암막새 중에는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중앙의 꽃잎 문은 식물의 씨앗과 같은 모양으로 보이며 여기에서부터 타래덩쿨무늬가 이어진다. 이러한 문양은 원시적인 형태의 당초문으로 볼 수 있다. 조잡한 모습의 귀면 문에서도 원시적인 형태의 당초나 인동문과 같은 문양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원시적인 형태의 타래덩쿨무늬 중앙에 식물문과 귀면문을 각각 사용하는 기본적인 패턴은 금마저의 암막새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도 12)

지금까지 안학궁 암막새의 편년 연구를 보면, 고구려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 혹은 고려시대까지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어<sup>71)</sup> 편차가 매우 심하다. 각각의 편년관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물을 실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년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안학궁 암막새의 편년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미루어 두어야 하겠으나 백제 유문식 암막새의 원류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안학궁 암막새의 제작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제 유문식 암막새의 원류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창조론적 입장에서 백제시대에 유문식 암막새의 출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즉, 기존의 백제지역 등에서 밝혀지고 있는 문양의 모습에서 세련된 암막새의 등장은 이미 예고된 것으로 생각한다.

미륵사지나 제석사지 유문식 암막새의 경우 좌우에 당초문이나 인동당초문 계열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에서도 진파리 4호분, 내리 1호분, 강서대묘, 강서중묘 등에서 비슷한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sup>72)</sup> 백제에서도 능산리사지출토 광배편이나<sup>73)</sup>



도 12. 안학궁 출토 암막새

71) 이인철, 『기존의 연구성과』,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고구려연구재단, 2006, 27~31쪽.

72) 제송희, 『중국 남북조시대 팔메트 문양의 발달과 전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55~161쪽.

73)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 2000, 341쪽 도판.

부소산성출토 광배에서<sup>74)</sup> 수려한 인동당초문이 출토된바 있어 유문식 암막새에 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크다.

유문식 암막새 중 627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미륵사지 암막새의 경우 중앙에 심엽문이 시문되어 있다. 한정호는 이러한 문양을 화염보주형회문으로 보고 유사한 계통의 문양이 사용된 예로 왕궁리오층석탑 출토 사리내합, 능산리고분 출토 금동투각금구와 금동관장식, 익산쌍릉 출토 금동관장식, 나주 북암리 5호분 출토 규두대도, 나주 북암리 7호분 출토 금은장규두대도, 부여 하왕리 은제병유리구,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동장식구 등을 꼽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물은 주로 백제 사비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75)</sup> 그러므로 삼릉심엽문은 이미 백제에서는 보편화된 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유물은 왕궁리오층석탑 출토 사리내합의 문양이다. 왜냐하면, 금마저 제석사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문헌인 『觀世音應驗記』는 639년 화재에서 소실되지 않은 사리장엄구를 다시 봉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리장엄구를 다시 봉안한 위치는 제석사지에서 확인된 중건가람의 목탑지이며, 제석사지 심초석에서 나타난 사리공의 크기와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의 크기가 일치하고,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觀世音應驗記』에 기록된 사리장엄구의 내용이 같다는 점에서 사리내합은 원래 제석사지 창건가람에서 봉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석사지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단지 여기에서 출토된 수막새는 아직까지 사비지역 수막새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20년경에는 창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76)</sup> 그러므로 사리내합도 이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 13. 삼릉심엽문(왕궁리 사리내합, 미륵사지 암막새, 미륵사지 사리외호)

74) 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1995, 471쪽.

75) 한정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의 편년재검토 : 금제사리내합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3, 불교미술사학회, 2005, 42~43쪽.

76) 김선기, 앞의 논문, 2010, 163~169쪽.

왕궁리오층석탑 발견 사리내합의 문양은 당초문 부분은 없으나 삼릉심엽형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보다 몇 년 늦게 제작된 미륵사지 암막새에서는 이러한 문양을 철저히 도식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초문 줄기에도 이러한 삼릉심엽 모양의 새순이 돌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암막새보다 늦은 시기인 639년에 제작된 미륵사지 서탑 발견 사리외호에서는 삼릉심엽문이 보다 간략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미륵사지 암막새의 심엽문 출현은 이해된다.(도 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백제에서 사용되었던 인동당초문과 삼릉심엽문이 결합하여 미륵사지 암막새의 드림새 문양으로 등장한다. 특히 왕궁리 유적 사리장엄구 중 사리내합의 문양은 미륵사지 암막새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석사지 암막새 문양은 인동당초문과 귀면문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미륵사지 암막새보다 늦게 만들어진 제석사지 암막새는 드림새에 나타나는 문양이나 기와 등문양의 형태, 마포흔이나 혹은 태토 등에서 조차 연결 관계를 살펴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미륵사지 암막새 제작기법이나 형식의 계승보다는 독자적으로 드림새 문양을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동문은 고구려의 청암리토성 출토 금동투각화염문관장식을 비롯하여 진파리 4호분, 내리 1호분, 강서대묘, 강서중묘 등에서 비슷한 인동문을 확인할 수 있다.<sup>77)</sup> 그리고 이러한 인동문은 수막새 문양으로도 사용되는데 환도산성과 국내성 출토 인동문 수막새가 있다.<sup>78)</sup> 백제에서도 다양한 공예품에 인동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무령왕릉 출토 순금투각관식이나 금동식기와 연화문전에 인동문이 나타난다.<sup>79)</sup> 그리고 능산리사지 출토 광배편,<sup>80)</sup> 부여 구교리사지 출토 전과 군수리사지 상자모양전<sup>81)</sup>에서도 인동문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제석사지 암막새보다 앞선 시기에 사용된 유물들이다.

귀면문도 중국의 남조와 북조시대에 수막새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sup>82)</sup> 또한 고구려에서도 집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의 귀면문이 출토되고 있고, 평양지역의 정릉사지와 금강사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sup>83)</sup> 백제시대에는

77) 제송희, 앞의 석사학위논문, 2005, 155~161쪽.

78) 백중오, 앞의 논문, 2005, 208~214쪽.

79) 국립공주박물관, 『백제 사마왕』 무령왕릉 발굴 이후 30년의 발자취, 2001.

80) 국립부여박물관, 앞의 책, 2000, 341쪽 도판.

81) \_\_\_\_\_, 『백제와전』, 2010, 123·328쪽.

82) 이희돈, 『남조의 귀면문와』,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와학회, 2009 ; 심광주, 『북조의 기와』,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와학회, 2009.

외리출토 귀면문전이 대표되는데,<sup>83)</sup> 고구려에서 만큼은 유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제석사지 유문식 암막새의 문양은 앞선 시기의 미륵사지 암막새 문양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백제 등에서 사용되었던 인동당초문과 귀면문이 결합되어 제석사지 암막새의 드림새 문양으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밝혀진 백제시대 암막새로 추정되는 유물에 대한 검토와 형식 분류를 시도하고 그들의 편년과 아울러 원류와 전개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암막새의 형식을 무악형과 유악형으로 나누고 무악형을 압날식·유단식·음각식으로 분류하였다.

무악형은 중국이나 고구려의 예를 보면 시문구제작형 압날식이 암막새의 선행형식으로 파악되나 백제에서는 이러한 문양이 시문된 기와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군수리사지에서 지두제작형의 암막새만 출토되었을 뿐이다. 유단식은 풍납리토성 경당지구에서 수지제작형이 처음 등장하며, 와도제작형은 이후 부여의 몇몇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사비도읍기에 일시적으로 유행했던 원시적 형태의 암막새 형식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유단식 암막새는 군수리사지 압날식 지두제작형 암막새의 영향으로 유악형 무문식 암막새가 제작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두제작형 암막새는 아직까지 중국 남조에서의 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중국 북조의 영녕사지 등의 암막새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되며, 압날에 의해 막새 하단부의 처짐은 유단식에 영향을 주어 유악형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악형은 무문식과 유문식으로 구분되며, 무문식에서 유문식으로 발전한다. 유문식은 미륵사지와 제석사지에서 암막새 중앙에 각각 심엽문과 귀면문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패턴을 갖는 암막새는 고구려 안학궁지에서 확인된다. 안학궁 기와의 편년에는 많은 편차가 있지만 원시적인 모습은 진화론적인 면에서 백제 유문식 암막새의 원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3) 백종오, 앞의 논문, 2005, 93~113쪽; 김희찬, 「고구려 귀면문 와당의 형식과 변천」, 『고구려발해연구』34, 고구려발해학회, 2009.

84) 박대남, 「부여 규암면 외리출토 백제 문양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미륵사지 암막새는 기존의 인동당초문이나 심엽문이 결합하여 나타나는데, 특히 심엽문은 왕궁리오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의 문양을 도식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제석사지 귀면문형 암막새는 미륵사지 암막새의 문양이나 제작기법을 계승하여 만들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존의 문양들을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드림새 중앙에 심엽문과 같은 식물문의 모습을 두거나 귀면문을 두는 패턴은 후대 암막새 제작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된다.

본 논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연구사의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나 그러지 못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으로 유물을 실견하지 못하고 보고서 등에 의존하였음을 밝혀두면서 기회가 되면 추후 다시 논하고자 한다.

■ 투고일 2012년 8월 1일 |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3일 ■

## 참고문헌

### <국내>

- 박용진, 『공주출토의 백제와당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0.
- 황수영, 『백제의 불상 조각』, 『백제문화』7·8합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75.
- 박용진, 『백제 와·전자료의 해설』, 『백제와전도록』,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3.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 발굴조사보고서 I, 1989.
- 문화재연구소, 『미륵사』 발굴조사보고서 I, 1989.
- 김성구, 『백제의 와전』, 『백제의 조각과 미술』,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1.
-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구아리 백제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93.
- 한국교원대학교 박물관, 『중원 탑평리사지 발굴조사보고서』, 1993.
- 김선기·김종문·조상미 외, 『익산제석사지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4.
- 부여문화재연구소, 『부소산성』 발굴중간보고서, 1995.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 발굴조사보고서 II, 1996.
- 중국사회과학원고고연구소, 『北魏洛陽永寧寺』, 1996.
- 김수태, 『역사적 고찰』, 『성주사』,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 김춘실, 『백제조각의 대중교섭』, 『백제미술의 대외교섭(제5회 전국미술사학대회 발표논문집)』, 1998.
- 박홍국,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 와요지와 출토와전에 대한 고찰』, 『영남학보』5, 영남고고학회, 1998.
- 성정룡, 『유물에 대한 고찰 -기와』, 『성주사』,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 이다운, 『성주사지 출토 백제기와와 일본 오함사지 출토 기와 비교고찰』, 『성주사』,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
- 충남대학교 박물관, 『성주사』, 1998.
- 노중국, 『백제 무왕과 지명법사』, 『한국사연구』107, 한국사연구회, 1999.
- 최맹식·서길수, 『고구려유적 기와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7, 고구려학회, 1999.
- 강우방, 『한국와당예술론서설』, 『신라와전』, 국립경주박물관, 2000.
- 국립부여박물관, 『능사-부여 능산리사지발굴조사 진전보고-』 도면·도판편, 2000.

- 국립부여박물관, 『능사 -부여 능산리사지발굴조사 진전보고-』 본문, 2000.
-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와전』, 2000.
- 김성구, 『신라기와의 성립과 그 변천』, 『신라와전』, 국립경주박물관, 2000.
- 최맹식, 『고구려 기와의 특성』, 『고구려연구』12, 고구려학회, 2001.
- 국립경주박물관, 『백제 사마왕』 무령왕릉 발굴, 그후 30년의 발자취, 2001.
- 조성운, 『고신라 유단식 기와에 대하여』, 『고문화』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1.
- 김유식, 『한국 기와의 시대적 특징』, 『유창종 기증 기와·전돌』, 국립중앙박물관, 2002.
- 최맹식, 『황룡사지 회랑외곽 출토 평기와 조사연구』, 『문화사학』17, 한국문화사학회, 2002.
- 김종만, 『부여 능산리사지에 대한 소고』, 『백제금동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2003.
- 이도학, 『백제 무왕대 익산 천도설의 재검토』, 『경주사학』22, 경주사학회, 2003.
- 최맹식, 『삼국시대 평기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권오영, 『한성기 백제 기와의 제작전통과 발전의 획기』, 『백제연구』3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4.
- \_\_\_\_\_, 『한성기 백제 기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기와 연구의 회고와 전망 (제1회 한국기화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집)』, 2004.
- 최맹식, 『삼국 암막새의 시원에 관한 소고』, 『문화사학』21, 한국문화사학회, 2004.
- 백종오, 『고구려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심상욱, 『백제 암막새의 출현과정에 관한 검토』, 『문화재』3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제송희, 『중국 남북조시대 팔메트 문양의 발달과 전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정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의 편년재검토 -金製舍利內盒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3, 불교미술사학회, 2005.
- 국립부여박물관, 『百濟의 工房』, 2006.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 관음·밤골사지 시굴조사보고서』, 2006.
- 김선기·조상미, 『익산왕궁리전와요지(제석사폐기장)』, 원광대학교 박물관, 2006.
- 리광희, 『기와와 질그릇을 통해 본 안학궁의 존속연대』,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고구려연구재단, 2006.
- 박대남, 『부여 규암면 외리출토 백제 문양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인철, 『기존의 연구성과』, 『고구려 안학궁 조사보고서 2006』, 고구려연구재단,

2006.

조원창, 『백제 곡절소관형 와당의 시원과 변천』, 『상명사학』10·11·12합집, 상명사학회, 2006.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제석사지 제1차조사』, 회의자료, 2007.

김선기, 『익산 제석사지 백제기와에 대하여』, 『기와학회논문집』3, 한국기와학회, 2007.

김주성, 『백제 무왕의 즉위과정과 익산』, 『마한백제문화』17,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7.

노기환, 『미륵사지 출토 백제 인가와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정치영, 『한성기 백제 기와 제작기술의 전개양상』, 『한국고고학보』63, 한국고고학회, 200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 제석사지 제2차조사』, 회의자료, 2009.

\_\_\_\_\_, 『부여 관북리백제유적 발굴보고 III』, 2009.

김선기, 『지지명 인가와를 통해 본 미륵사 창건과 몇 가지 문제』,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김성구, 『중국기와의 변천과 특성』,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제6회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2009.

김희찬, 『고구려 귀면문 와당의 형식과 변천』, 『고구려발해연구』34, 고구려발해학회, 2009.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구려유물』, 조선고고학총서 34 중세편 11, 진인진, 2009.

심광주, 『북조의 기와』,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와학회, 2009.

왕궁리유적전시관, 『왕궁리유적전시관도록』, 2009.

이희돈, 『남조의 귀면문와』,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와학회, 2009.

주홍규, 『集安지역 고구려기와의 제작기법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66, 한국상고사학회, 2009.

윤용희, 『백제 와전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 『백제와전』, 국립부여박물관, 2010.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석탑 제18차 자문회의』 회의자료, 2010.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와전』, 20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군수리사지 I』, 목탑지 금당지 발굴조사보고서, 2010.

김선기, 『미륵사지출토 백제시대 암막새 연구』, 『고문화』7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10.

김선기, 『익산지역 백제 사지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선기, 『익산지역 사찰유적을 통해 본 백제문화의 창의성』, 『전북향토사의 재발견』, 전북역사문화학회, 201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석사지』 발굴조사보고서 I, 2011.  
정치영, 『백제·고구려와 위진남북조 제와술 비교 연구』, 『중앙고고연구』8,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국외>

石田茂作, 『夫餘軍守里廢寺址發掘調査(概要)』, 『昭和11年度 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1937.  
龜田修一, 『韓國古代瓦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김유식, 『三國時代軒平瓦の發生に關する小考』, 『鹿苑雜集』, 奈良國立博物館研究紀要, 2004.  
大西貴夫, 『日本の飛鳥時代初期瓦當について』, 『백제와전과 고대 동아시아의 문물교류』, 한국기외학회, 2010.

Abstract

## Forms and Development of Concave Tiles during the Period of Baekje Kingdom

Kim, Sun-Ki

The concave tiles used during the Baekje Kingdom era could be classified into those without hanging low jaws and those with ones. The concave tiles without hanging low jaws could further be categorized into pressing, step-shaped and engraved types whereas those with hanging low jaws could be subdivided into the type with inscription and that without, being possibly broken down in more details depending on the manufacturing methods and kinds of patterns. The origin of the concave tiles employed by the Baekje Kingdom might be traced up to the step-shaped concave roofing tiles as found to have been used in some remains unearthed in Gyeongdang region of Pungnap-ri Fortification and in Buyeo area, a fact suggesting that tiles of the pressing type were produced under the influence of Chinese roofing tiles as evidenced by the remains unearthed from the temple site of Gunsu-ri and that such influence prompted roofing tiles to develop into the type without inscription of those with hanging low jaws.

The concave tiles with hanging lower jaws of the type without inscription in roof-end tiles were found to have progressed to the type with budding and tortoise patterns as seen in the remains unearthed from Geummajeo region. Although there are drastic deviations in each researcher's compiling of the chronology for the tiles used for the Anhak Palace in the Goguryeo Kingdom, it can't be denied that the motives of the plant and tortoise patterns shown in the center of concave tiles must have been borrowed from the tiles with inscription of the Baekje Kingdom era.

By the way, the concave tiles of the type with inscription as unearthed

from the Mireuk Temple site turned out to have been made in application of the technologies of arabesque pattern combined with the pattern found in the inner case of the Sarira containers unearthed at the site of the Wanggung-ri 5-story pagoda. The concave tiles with inscription having appeared later at the site of Jeseok Temple showed that they did not inherit the traditional technology of concave tiles as used for concave tiles in Mireuk Temple but were found to have uniquely combined two techniques of tortoise and arabesque patterns.

Such techniques of placing plant designs such as budding pattern and tortoise in the center of roof-end tiles were continuing to exercise influence upon production of concave tiles in later age.

Key Words : Concave tiles, type without hanging low jaws, type with hanging low jaws, finger-tip sealing pattern, budding pattern, tortoise pattern